

'U대회 재도전' 이달 말께 결정

박광태 시장 "광주 시민 관심사... 각계 여론 충분히 수렴"

광주시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 재도전 여부가 오는 9월 말~10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일 광주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2015 하계U대회 재도전 여부에 대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입장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도 재도전을 촉구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민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박 시장은 광주시의회의 재도전 촉구 결의안 제작 직후인 지난달 말부터 교육계와 경제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체육계,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이따금 만나 광주의 U 대회 유치 재도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하지만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은 2015년 U대회 개최지 결정 시점을 내년 5월로 예고, 남은 시간은 이제 8개월여에 불과하다. 2013년 대회 개최지 결정 과정을 토대로 할 경우 국내 유치 도시로 확정된 이후 유치신청서(Bidfile) 작성과 제출, 해외 유치 활동, FISU의 후보 도시 현지 실사를 거쳐 개최지가 확정되거나 5개월여가 소요된다.

이에 앞서 정부로부터 국내 유치 도시로 최종 확정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의 경우 대한대학스포츠 위원회(KUSB)와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등 무려 7단계의 절

차를 밟는데 3개월이 걸렸다. 타당성 용역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

경쟁 도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쟁 구도는 오는 10월께로 예상되는 FISU의 유치의향서 접수가 끝나자 제대로 운용과 드러나겠지만 올 상반기 도전 선언 이후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고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를 비롯 2013년 U대회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스페인 비고, 캐나다 에드먼턴 등 4~5개 도시들이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함부르크는 지난달 베이징을 립Mic에 참석한 조지 키리안 FISU 집행위원장은 초청, '함부르크 나이트'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先 지방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역균형발전협력 촉구

수도권 자치단체장을 물론 우리나라 당내에서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역행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력(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성명에서 "수도권 일부

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 오랜 염원을 익지논리로 꺾어내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계단식으로 일인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확고히 해 더

이상의 논란과 국력 낭비를 막고 수도

권규제완화 관련 법안 발의는 힘의 논

리가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충분한 논

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영기자 penfoot@

광기술 기반 조선, 자동차, 바이오·의료 육성

'호남 광역 경제권' 사업 채택 건의

정부가 지역발전 혁신정책으로 추진 중인 '5+2 광역 경제권'과 관련, '호남권'으로 편성된 광주시·전남도·전북도가 광역 경제권 시범사업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

역경제권 시범 사업으로 '광기술 기

반 호남권 조선, 자동차, 바이오·의료

기기산업'은 광주의 관광업 클러스터를

축으로 전남은 조선, 신·소재산업, 전

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집중육성,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자체는 제출한 3개 사업 가운데 최소 1~2개 사업이 추진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마치 만나라 얘기하듯 한다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신규 채용때 저소득층 우대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

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호남권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400억

원 기관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